청년녹색당 지역간담회 **<**녹색당원이 된 청년들**>** 후기

제주지역 간담회 후기

- 일시/장소: 2021년 4월 17일(토) 오후 3시 / 제주녹색당사

2021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가 첫 번째로 던진 질문은 '녹색당의 청년당원들이 왜 녹색정치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녹색의 관점에서 청년정책이란 어떠해야 하는지'였습니다.

그에 관한 답을 구하고자, 지역간담회를 시작합니다. 수도권 중심적이던 활동 반경에서 고개를 돌리고 신현정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님의 삶터이기도 한 제주에서 첫 번째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청년'을 호명할 때 스며있는 (성)차별, 지역의 맥락을 지우고 수도권중심적 정책을 그대로 베껴다 쓰는 모순, 개발로 인해 양산되는 불안정노동 등 지역의 청년들이 느끼는 것들을 모아가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언어화하기 어려운 고민들을 녹색의 언어로 만들겠습니다.



광주지역 간담회 후기

- 일시/장소: 2021년 6월 10일(금) 오후 7시 / 송정마을카페 이공

청년녹색당 지역순회 간담회 그 두 번째로, 광주녹색당에 다녀왔습니다.

청년당원이자 광주녹색당 정책위원장인 혜경 님이 '녹색사람책' 코너에서 고양이 동수님과 같이 살게 되면서 확장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릴 적 로드킬을 당한 고양이들을 묻어주던 기억부터, 길고양이와 함께 살게 된 이후 유기동물 보호소에 관심을 갖게 된 시간. 그리고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여러 지역의 동물보호소를 답사하면서 한국의 동물보호소들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확인하였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몸이 망가지도록 일하는 개인이라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껴 정당활동을 하게 된 데까지. 고양이를 가족으로 맞이한 이후 시작된 녹색정치 이야기를 꽉꽉 채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바톤을 이어받아 참석자들이 광주 지역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광주는 세계인권도시라지요. 그런데 광주에서의 인권은 어떻게 사용되고 호명될까요. 5.18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여성과 성소수자 그리고 동물을 위한 목소리 등이 기득권이 된 '민주화세력'으로부터 어떻게 소외되는지 그 현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지역의 인재가 유출된다며 청년을 붙잡는 정책과 행사에서 청년들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기보다는 기업이 필요로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는 것을 함께 살폈습니다.

가치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지역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녹색정치를 나눌 수 있어 기뻤습니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지역에서의 녹색정치 그리고 청년정치를 어떻게 다듬어가면 좋을지 오늘도 서로에게서 힌트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2021년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의 질문, 지역의 청년정치는 어떠해야 하는가는 하루이틀 사이에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꾸준하게 이야기 모아가는 청년녹색당 되겠습니다.

비건 만찬과 따뜻한 환대로 맞이해주신 광주녹색당 청년모임, 광주녹색당 운영위원회, 카페이공 고맙습니다. 이공 가는 길에 인사차 잠시 들렀더니 빵을 두둑히 챙겨주신 광주송정 베이커리 '빵과장미'도 감사해요 🌹🍞!


컵 하나도
제대로
안 씻으면서